

[ 사회 ]

■수능 D-30 영역별 마무리 준비 어떻게

언어 실제 방송처럼 듣기 훈련  
수리 취약부분 공식·개념 정리  
외국어 기출문제 통해 문법 숙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0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11월15일)의 마무리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교육전문 포털사이트 '유웨이중앙교육'(www.uway.com)이 권장하는 영역별 학습전략을 알아본다.

▷언어 영역=듣기는 실제 방송 형태로 듣는 훈련이 중요하다. 남은 기간 실천형 모의고사 듣기 테이프를 구해 들으면서 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소화하는 훈련을 한다. 차분한 마음으로 내용을 들으면서 문제를 풀고 보고 10회 분량 정도의 듣기 훈련을 하다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에 주목해 듣는 감각과 노하우가 생길 수 있다.

▷수리 영역=실전 30분형을 시험 시간에 맞춰 풀어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 취약한 단원에 사용했던 공식과 기본 개념을 다시 정리한다. 지금부터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어 영역=기출문제를 통해 문법과 어휘를 정리한다. 문법은 출제된 중요 문제를 부분별로 정리한다. 이때 반드시 문제화했던 예문을 적어 둔다. 어휘는 출제된 단어 및 속어의 다양한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듣기는 실전 문제만큼 약 30분 정도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읽기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 장문은 속독이 필요한 유형이므로 지칭하는 대상이 글의 내용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빨리 읽는다.

▷사회탐구 영역=사회적인 관심사가 됐던 시사 문제는 복록을 만든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됐던 시사 문제를 작성해 보고 이것이 시사 문제로 어떻게 응용돼 출제될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 탈레반 인질 사태와 관련해 종교의 다양성 부분을 눈여겨 보는 등 교과 지식과 연결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과학탐구 영역=선택과목 중 상 대적으로 부족한 과목이나 단원이 있다면 이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모의평가나 그밖에 지금까지 학습해 온 교재를 통해 자신이 어느 단원의 학습 내용이 취약한지를 파악한다. 실수를 했거나 틀린 빈도가 높았던 단원의 학습 내용을 교과서 및 기본 교재를 통해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고 그래프·그림·도표에 관한 해석을 확실하게 정리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설렁한 시·도 홍보관

광주 월드컵경기장 앞 광장에 마련된 각 시·도 홍보관. 전북 등 타지역 관계자들은 체전기간 중 홍보로 축제·디자인비엔날레 등이 함께 열리는 바람에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아쉬워했다.

/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체전 폐막...어떤 효과 있었나

“외지인 9만명 1인 30만원 이상 지출”

지난 8일부터 7일간 열전을 벌인 제8회 전국체육대회가 14일 막을 내렸다. 광주체전은 당초 예상만큼 경제적 유발효과와 타 축제와의 시너지 효과 등을 가져왔을까?

▷경제적 파급효과는?광주시는 생산유발 효과 1천100억원·고용유발 효과 6천 명·부가가치 유발 효과 500억원 등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체전 기간 3만여 명의 선수단, 6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몰려 1인당 30만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 관계자는 “충장로·삼부지구·경기장 주변 등의 음식점은 20~30% 매출이 늘었고, 할인행사를 한 일부 옷가게도 100%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며 “택시 승객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시너지 효과 있었나?=체전

충장으로 축제 등 겹쳐  
체전 관람은 ‘한산’

과 같은 기간에 열린 디자인비엔날레에는 지난 13일까지 8일간 5만1천765명이 다녀갔다. 이는 지난 2005년 같은 기간보다 5천 명이 줄어든 수치다. 선수단 단체관람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체전 관람객은 100명을 넘지 않았다.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월드컵경기장에 홍보관을 마련했던 전북의 경우 방문객이 없자 홍보 도우미를 중간에 철수시켰다. 전북도 관계자는 “충장로 축제와 디자인 비엔날레가 함께 열리는 통에 체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관기관 협조는?=대부분의 유관기관·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일부 기관에선 엇박자를 보였다. 공군부대의 경우 전투비행 훈련을 자제해달라고 광주시가 두 차례나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강행해 송무정에서 열린 군도대회가 소음 때문에 차질을 빚었다.

전남대는 테니스장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일간의 경기 일정에 차질을 빚게 했다. 체전시설 지원 예산을 연초에 받고도 7월에야 보수공사에 들어가 충분히 다져지지 않는 바람에, 개막일 내린 비로 코트가 엉망이 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정규 결승전이 열리고 있는 통진중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러 550여 명의 응시생들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았다. 이외 타지역 선수·임원들은 체전 참가 차량들에게까지 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받은 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전남 교복 공동구매 9% 불과

광주는 올 30% 넘어

전남지역 각급 중·고등학교의 교복 공동구매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국정감사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2007년 도내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참여율은 평균 9.1%에 불과했다.

전남 학교의 교복 공동 구매율은 지난해 5%에 그쳤으며, 올해는 ▲동북 15.4% ▲을 하북 7.1%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 반면 광주 시

내 학교들의 공동구매율은 지난해 27.3%였으나, 올해는 ▲동북 33.6% ▲하북 38.7% 등 크게 높아졌다. 최 의원은 “교육부가 교복 착용시기를 5월로 늦추고 공동구매를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지만, 지역별 특성이나 학교여건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있다”며 “공동구매 매뉴얼 배포·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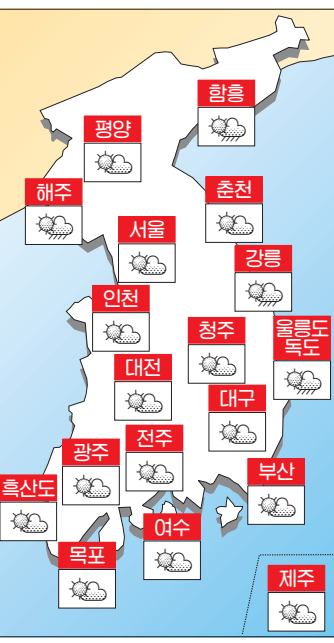
큰 일교차 감기조심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 차차 흐려지겠다.

10월 15일

(음 9월 5일) <전국날씨>

Table with 3 columns: Region, Weather, Temperature. Includes entries for Jeju, Gyeonggi, Seoul, etc.



서울날씨 앞바다=북서~북동 파고 1.0~1.5m 만바다=북서~북동 파고 1.0~2.0m 남해날씨 앞바다=북서~북동 파고 1.0~1.5m 만바다=북서~북동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3:57 썰물 < 09:13 고수 밀물 < 16:35 썰물 < 21:47 여수 밀물 < 10:58 썰물 < 04:24 22:53

▲해돋이 06:38 ▲해질 17:58 ▲달돋이 10:20 ▲달질 19:55

<주간날씨> 기상내선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with 6 columns: Day, Weather, High/Low. Shows weather forecast for Oct 16-21.

설악산 대청봉 첫눈

국립공원 설악산 대청봉에 올 가을 첫눈이 내렸다.

14일 기상청과 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5분께 영상 3.5도의 기온 속에 30여 분간 눈발이 내려 울레 가을 들어 첫눈을 기록

했다. 이번 눈은 지난해 10월23일 7cm의 적설량을 기록한 것에 비해 9일 빠른 것이다.

설악산 중정대피소 관계자는 “강풍으로 적설은 없지만 눈발이 날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했다”며 “일부 등산객이 단풍과 첫눈을 동시에 즐기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연향뉴스

“대학생 35% 성경험 있다”

11% “통일 필요없어”

대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은 남북통일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대학신문이 창간 19주년 기념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20개 대학의 학생 총 2천 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북통일에 대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10.8%, ‘절대 통일되면 안 된다’는 응답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구조는 ‘부유층-빈민층’(45.2%)이라고 답했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빈부격차 해소’(30.7%)가 가장 많이 꼽혔다.

여가시간에는 영화관람(21.0%)·독서(16.1%)·TV시청(12.4%)보다 웹서핑(24.2%)을 한다는 학생이 더 많았으며, 한 달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대학생은 전체의 11.5%나 됐다.

성형 열풍을 보여준듯 8.8%의 학생들이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다’, 15.4%는 ‘앞으로 할 생각’이라고 응답했으며 성경험에 대해서는 34.7%가 ‘경험이 있다’, 혼전 성경험에 대해서는 12.1%만이 ‘절대 안 된다’고 답해 개방된 성의식을 드러냈다.

가장 좋아하는 경제인은 이근희(44.0%), 가장 좋아하는 운동 선수는 박지성(3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향뉴스

Advertisement for 'Public Personnel Exam' and 'Real Estate Management Exam' with details on course fees and enrollment.

Advertisement for 'Public Personnel Exam' and 'Real Estate Management Exam' with details on course fees and enrollment.

Advertisement for 'National University Student Course' with a table of subjects and fees.

Advertisement for 'Public Personnel Exam' and 'Real Estate Management Exam' with details on course fees and enrollment.

Advertisement for '7th Grade Public Personnel Exam' with details on course fees and enrollment.

Advertisement for '9th Grade Public Personnel Exam' with details on course fees and enrollment.